

21세기를 향한

대한전기협회의 미래상

변 중 달
한국전력기술(주) 위촉기술역

1. 광복 50주년

가. 냉전 시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1995년은 광복 50주년, 남북 분단 50주년을 기록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 후 과거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초강대국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는 냉전시대를 맞게 하였으며 몇몇 나라들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것이다. 두 개의 초강대세력의 의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분단되었고 6·25 동란이라는 비참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것이다. 전국토는 초토화되어 냉전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동안 높은 교육열과 해방직후 도입한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와 그의 성공에 따른 고급인력의 양산 그리고 산업화,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서독과 일본에 이어 세계가 2차대전후에 경험한 소위 제3의 부흥기적이라고 경탄하는 경제발전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나. 경제 성장

특히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역사상 전례

가 없을 정도로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문자 그대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비교적 단시일내에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중심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강대국에 의한 양극시대의 붕괴와 냉전시대의 종말로 군사력을 타국지배의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는 군사력의 강약이 아닌 다른 나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힘, 즉 협력능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판국이 되었다.

이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성공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과 중국은 이제 세계의 지도적인 경제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국력 신장

그리고 세계의 선진공업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1948년에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2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가 1994년에

25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1996년말로 예정하고 가입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후발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기술지원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대응하는 역할수행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었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기술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OECD 가입신청을 앞두고 우리의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GNP) 대비 0.35%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이의 전단계로 OECD 가입연도인 1996년까지 이를 0.11%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의 ODA 규모는 1993년 현재 GNP 대비 0.05%(약 1억7600만달러) 수준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0.35%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개도국 제공용 장기저리차관인 EDCF는 지난해의 1321억원보다 51% 늘어난 2천억원을 1995년내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무상지원기금으로 지난해의 318억원보다 20% 늘어난 382억원을 1995년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DCF 재원 5600여억원을 이미 조성해서 중국, 베트남 등 21개국의 사회간접시설건설 등 34개사업에 350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라. 세계화 시대

그동안 GATT 체제는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였으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로 탄생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에 비해 조정을 위한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WTO 체제의 또다른 특징은 강력

한 조정권한과 함께 그 대상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국내산업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부의 보호막이 제거됨에 따라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가릴 것없이 무한경쟁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과 기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출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조차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정상회의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동인식에 도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룩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2. 전기협회 창립 30주년

가. 전력산업

우리나라 전기의 기원은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후 일제치하에서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고 1945년 해방을 맞이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남한의 전력사업은 겨우 19만8천kW의 발전설비로서 조선전업, 경성전기 및 남선전기 등 3개 회사가 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연한 북한측의 전력공급 중단과 6·25 동란으로 전력사업은 침체와 암흑의 시련을 겪게 된다.

5·16 혁명으로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되었던 전기 3사의 통합이 급진전되어 1961년 7월 1일 한

국전력주식회사가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발전 설비는 합계 36만7천kW이었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전력사업의 확장이 계속되었으며, 1965년 12월에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제정되어 한국전력 주도로 농어촌전화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64년말 25.5%에 불과하였던 전국의 전화율은 1990년말에 99.9%에 달하게 되었다.

1993년말 현재 발전설비는 2765만kW에 달하여 1961년 설비의 66배로 성장하였으며, 국민 1인당 소비전력량도 1961년의 46kWh 명에서 2899kWh/명으로 63배나 증가하였다. 전력사업도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력 산업 각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전기계 각분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아·차·원에서의 협력 조정기능과 정보의 수집과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나. 전기협회

1965년에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 전반에 관한 사업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관계 각급 단체와 전력사업체,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을 비롯하여 전 전기계가 총망라된 중립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1994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면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통상산업부 위탁), 기술기준 연구(한전 위탁),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개정,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관계 세미나, 한전 중소기업지원사업 협력 연구 및 시범업체 실태조사, 일본전기협회와의 교류 그리고 전기분야 당면과제 조사연구 위탁(3개 과제, 조사연구기간: 16개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출판사업으로서 협회지 및 전기연감과 기타 기술도서를 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책 및 제도의 세계화

가. 정책의 산실

대한전기협회의 설립목적인 전반적인 전기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및 전력에 관계되는 세계동향과 추이를 예의 주시 연구하고 국내 에너지수급 및 전력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연구사업을 협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기적인 연구보고서가 간행되고 이것이 전기계의 이슈로서 전기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동향과 지구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 대책과 에너지중에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력부문의 합리적인 개발대책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사활동과 연구결과를 활발한 개진으로 정책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 도출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을 생각할 때 또한 국가 전체로서 총체적인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에너지의 다단계적인 활용과 코제너레이션선과 같은 방식에 의한 지역난방 또는 공업단지에서의 열전병급 등과 같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접근방식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시스템의 검토와 판단을 위하여는 전기협회와 같은 비영리의 중립적인 단체가 보다 강력한 조정권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나. 영역 확대

지구촌이 지역별로 블록을 형성하여 상호협력과 상호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협력체제를 이룩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보다 긴밀한 전력부문의 협력을 위하여는 인접국간의 전력에너지의 유통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를 위하여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협력의 창구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의 전력유통은 1945년 8월 15일의 해방과 남북의 분단상태하에서도 북한측의 전력을 남한측이 공급받아왔으나 북한측의 들연한 송전중단으로 중지된 바 있다. 대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력계통이 연결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송전선이 연결되고 남한의 전력을 북쪽으로 송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후의 전력사업에 대한 대처방안도 면밀하게 시나리오별로 조사와 연구를 축적함으로써 통일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협회는 통일조국의 대한전기협회가 될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전기협회로의 국제화는 물론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그 업무영역을 세계적인 전기협회로서 확대하여야 한다.

다. 세계화를 위한 제도 연구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 및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과거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법체계를 탈피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법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 여러 나라의 전력 에너지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령뿐만 아니라 전력정책에 대하여도 끊임없는 자료수집과 이의 번역 배포로 전력정책 수립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선정된 외국의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참고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나라 관계법령의 제정과 보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의 관계법령집을 주기적으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면 외국의 최신의 제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천되어온 경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연구와 법령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단체기준의 제정

현재 전기협회에서 제정한 단체기준은 내선규정과 배전규정의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일본전기협회의 경우 이와 같은 단체기준이 전기관계 전분야에 걸쳐 규정과 지침으로 구분되어 제정, 관리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용설비, 배전, 송전·통신, 발전전, 원자력 및 화력의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규정 31개, 지침 29개로 합계 60개의 단체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협회도 단체기준 제정을 보다 확대하여 각종 법령으로 규제하는 의무사항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비별로 나열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4. 홍보활동

가. 홍보 대행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그룹 회원사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체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계의 핵심 사업체들이다. 이와 같은 회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국민의 보다 깊은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각 회원사들이 제각기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홍보활동을 중립적인 비영리단체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홍보효과가 보다 클 것이다.

특히 공통적인 주제에 대한 결집된 홍보활동은 회원사 각사가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홍보효과에 비해서 몇배 내지 몇십배의 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책임있게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홍보활동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전기안전, 절전과 환경의식의 고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력사업전

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기사업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전기박물관을 전기협회 주관으로 설립·운영토록 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전기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전기기기를 비롯하여 모든 제품의 국산 1호와 현재의 제품을 비교 전시하며, 전기사업에 수반하는 설계 및 공사관련 자료와 기록도 전시함으로써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 건물에는 여러 개의 회의실과 시청각 교실을 두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시청각교육, 회원사간의 심포지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재학생중에서 대표자를 선발하여 미국의 에디슨재단에서 주관하는 국제 에디슨탄생일 기념축전 및 과학청소년의 날과 같은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게 하여 과학하는 마음과 국제감각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세계화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전기안전

전기는 이제 공기나 물과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기는 더욱 우리생활에 파고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리한 전기도 잘못 다루면 감전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감전사고 통계에 의하면 1991년 사망 232명, 부상 534명 합계 766명에 이른다. 또한 1993년 전기화재 건수가 무려 7,153건이나 되며 이로 인한 이재자수가 300여명 그리고 재산피해액은 200억원 규모이다. 그리고 이 전기화재는 총 화재에서의 점유율이 3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전사고와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전기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국민 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기화재와 산업재해 등도 전기안전 캠페인을 전기계의 중심단체인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관공서, 각급 학교, 제조업계, 건설업계, 각종 서비스업계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거국적인 캠페인으로 전개함으로써 산발적인 분야별의 계몽활동에 비하여 월등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과 비용도 총체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절전과 환경 보호

지구환경과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전기절약은 이제 발전설비용량이 부족할 때에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인하는 지구환경 파괴와 유한한 에너지 자원을 생각할 때 절전은 이제 생활화하여야 할 과제가 되었다. 물 절약, 종이 절약 등 모든 물자의 절약과 재사용은 전기와 에너지의 절약으로 이어지며,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환경보전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많은 돈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거나 아예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환경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속에서 작은 일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할 때 자연은 서서히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꾸준한 홍보활동만이 환경인식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원인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인 소중한 물의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 전기신문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기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기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제 등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은 과거와는 그 차원이 다르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홍보활동의 수단으로는 전기신문이 다른 매체에 비하여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일간 신문을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기신문은 중립적인 비영리단체인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

함으로써 보다 더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겠다.

일본전기협회의 경우 전기신문은 일간으로 지면 12면, 발행부수 14만부로서 110명의 직원이 신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에너지 정책, 전기사업의 경영 및 인사동향, 중전·가전기기·컴퓨터·반도체 업계의 경영 및 기술동향, 전기공사·자재의 업계동향 등 전국을 망라한 뉴스, 해설을 비롯한 논단, 수필, 그래프 등이 지면을 장식하여 읽기 쉽고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서 독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자신문이 성공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불편애로사항 신고센터 운영

통상산업부

1. 목 적 : 업계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통상산업부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제반 불편사항을 신고·접수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봉사하는 통상산업 행정구현
2. 신고자 : 업계 또는 민원인, 산하기관 임직원
3. 신고처 : 통상산업부 감사관실(전화 503-9419, 500-2356~8, FAX 503-9420)
4. 신고대상
 - 통상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불편·애로·비리사항
 - 기관운영, 민원업무의 제도개선 사항 등
5. 신고절차 및 관리
 - 신고는 FAX, 우편, 전화, 방문 등 신고자의 편의에 따르되, 실명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접수 및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
6. 신고내용의 조치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관련국 및 관련부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고,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서 통보
7. 설치일 : '95. 2. 24